

시편 103(102), 1-2. 3-4. 8과 10. 12-13

(후렴) 주님은 자비롭고 너 - 그 러우시 네.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 여 라.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.

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 시 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 는 분.

3. 주 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 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 시 네.

4. 해 뜨는 데서 우 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 시 네.

해 지는 데가 먼 것 처 럼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 여 라. 그 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 라.
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 고 자 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 는 분.
우 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 고 우 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 시 네.
아 버지가 자식을 가여워 하 듯 주 님은 당신을 가여워하 시 네.
경외하는 이